



문화전당에서 '문화 피서' 즐겨요

문화창조원 '라이트 배리어 세 번째 에디션' 등 무료 개방 문화정보원 라이브러리파크 동방의 시성 '타고르' 국제 교류전 19~20일 'ACC 월드뮤직페스티벌' 김태우·알리 등 공연

문화전당이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을 위해 문화피서를 준비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방선규)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무료 전시와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문화창조원 전시를 충실히 관람하려면 하루 8회 정기 도슨트(전시해설) 프로그램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매 시각 진행되는 무료 전시해설 프로그램에 참가하면 된다.

대표적 전시공간인 문화창조원에서는 오는 31일까지 'ACC(Asia culture center)커미션 : 라이트 배리어 세 번째 에디션'과 '신화와 근대, 비껴서다(복합4관)' 전시를 무료개방하고 있다.

'라이트 배리어 세 번째 에디션'은 연무가 자욱한 대형 공간에서 630개 오목거울이 반사한 빛이 허공에 그림을 그리는 작품이다. 차갑고 화려한 거울과 디지털이 빛어낸 환영 같은 그림은 관람객들에게 신비하면서도 몽환적인 경험을 선사한다. 이 작품은 한국의 손미미씨와 영국의 엘리엇 우즈로 구성된 미디어아티스트 그룹 '김치앤칩스'(Kimchi and Chips)가 창작했다.

'신화와 근대, 비껴서다'는 아시아에서 근대성이 갖는 의미를 주목한 전시다. 우리 역사이기도 한 아

시아 근대사와 기억, 근대인의 삶을 인주 찬 등 8명 작가가 작품을 통해 선보인다. 호 추 니엔(싱가포르)의 비디오 설치 작품 '두 세 마리의 호랑이'는 근대사와 인간문명의 한계 등 다양한 이야기를 사실감 넘치는 영상으로 선보여 관객의 발길을 붙잡는다.

문화정보원 라이브러리파크에서는 동방의 시성이자 사상가로 알려진 아시아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자 '타고르'를 만날 수 있는 국제교류전이 열리고 있다. '라벤드라나드 타고르 : 범세계주의자의 예술과 사상'을 주제로 열리는 전시는 타고르의 생애, 산티케탄, 기탄잘리, 극작가 타고르, 나의 마지막 사랑 등 다섯 개 소주제로 진행된다.

전시에서는 타고르가 1913년 노벨문학상 수상 후 제자들에게 들려준 장면과 연극에 직접 출연한 모습도 사진으로 볼 수 있다. 마하마트 간디, 헬렌 켈러, 알버트 아인슈타인 등과 함께 촬영한 보기도 문 사진도 포함돼 있다. 타고르가 생전에 남기고 간 문학과 예술의 족적을 따라 인도 문화예술에 다가갈 수 있다.

음악팬을 위한 무대도 마련된다. 'ACC 월드뮤직 페스티벌'은 오는 19일~20일까지 문화전당 일대에서 관객들을 맞이한다. '뚝자리에 앉아 음악을 즐



기는 자유로운 소풍' 분위기를 이어갈 이번 월드뮤직페스티벌에는 10개국 13개 팀이 참여해 다채로운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가수 김태우와 알리, 베이시스트 성민재, 재즈피아니스트 조운성, 싱어송라이터 하림, DJ KOO 등이 새로운 장르와 전통을 결합한 클럽 뮤직으로 한여름 축제 열기를 뜨겁게 달군다.

문화전당은 매일 오전 10~6시까지 개관하며 토요일은 저녁 7시, 매주 수요일은 밤 9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 매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 문을 연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담양 출신 김명서 시인

첫 시집 '야만의 사육제' 펴내



"나는, 다음 몇 가지 사안에 의미를 두고 살아야 한다. 이 시집이 어렵사리 태어났다는 것. 이 시집이 어렵사리 태어났다는 사실을 잊지 말 것. 시와 안팎에서 안 일이라는 테두리에 갇히지 말 것."

담양 출신 김명서 시인의 첫 시집 '야만의 사육제'(한국문연)에 실린 '시인의 말' 일부를 소개한다. 시를 대하는 진정성의 무게가 여느 시인의 작품집과 결이 다르다. 시에 대한 숭고한 관점, 그리고 시 창작뿐만 아니라 다른 일에서도 '안일'을 경계하는 다짐이 시집 성취를 기대하게 한다.

시집에는 불화의 세계를 특유의 시선으로 형상화한 46편의 시들이 수록돼 있다. 또한 고통의 시간을 건너는 화자의 회한도 담겨 있어 결코 가볍게 읽히지 않는다. 이러한 불화와 회한은 단순한 감정의 토로가 아닌 가치의 해석으로 전이된다.

"잘 조련된 곱들/ 쓸개까지 내주고도 도속당하는지/ 기름때에 찌든 가죽이 뭉글고 있다/(중략)'부당하고 당장 중단하라!!' / 플래카드/ 최루탄이 속을 자백질한다/ 물대포가 달려와 쓸어버린다"

시인은 표제지 '야만의 사육제'에서 동물농장과 과업현장을 '사육'의 모습으로 그려낸다. 자유의지가 거세되고 왜곡돼버린 현실을 격동의 심리로 드러낸다. 조강석 평론가는 "가치판단을 담고 있는 어휘를 통해 겹쳐지면서 회한과 분노는 극대화된다"고 평한다.

한편 김 시인은 2002년 '시사사'에 '비누'의 1편을 발표하며 작품활동을 시작했으며 담양문인협회 회원과 '노이즈' 동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우리 이야기 음악으로 만들어요

'꼬마 작곡가 광주 2기' 참가자 모집 ... 초등 3~6학년 5일까지

아동들의 생각 음악으로 표현

광주시향이 직접 연주까지

15주 과정 무료로 진행

지난 23일 광주문화재단에서 열린 '꼬마 작곡가 광주 작품 발표회-1'의 작품번호 1번 '현장은 감동적이었다.'

이날 연주된 곡은 대전 천문대에 놀러간 상훈이가 동생들과 우주 여행을 떠나고 싶은 마음을 담은 '우주', 애완견과 얽힌 이야기를 그린 신영이의 '귀여운 강아지' 등 17곡으로 모두 초등학생들의 작품이었다.

주민혁·이후성·홍의정·강경화·김근돈·박남씨 등 광주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이 연주하는 아이들의 곡을 들으며 객석에 앉은 가족들은 행복해 했고, 큰 박수를 보냈다.

"우리 아이가 이런 곡을 만들다니 정말 신기했다.", "음악을 듣는데 괜히 눈물이 났다.", "아이가 정말 자랑스럽다." 공연 후 가족들이 들려준 반

응이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이 진행하는 '꼬마 작곡가' 2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꼬마 작곡가'는 뉴욕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기존에 음악을 배운 적이 없고, 악기를 다루지 못해도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 수 있다는 개념을 바탕으로 아동들이 자신의 생각을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게 도와준다.

아동반은 초등학교 3~6학년이 대상이며 가족반은 3~6학년 자녀와 부모가 함께 참가할 수 있다. 강의는 매주 토요일 광주시립교향악단 연습실에서 아동반(오전 10시~오후 1시)과 가족반(오후 2시~5시)으로 나눠 진행된다. 교육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모두 15주 과정이다.

강의는 리듬 익히기, 멜로디 만들기, 악기 인터뷰, 개인별 작곡 수업 등으로 진행되며 11월 20일에는 광주문화재단 소극장에서 결과 발표회를 갖는다. 마감은 오는 5일까지다. 전액 무료. 문의 062-415-510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지난 23일 광주문화재단 소극장에서 열린 '꼬마 작곡가 광주 작품 발표회' 모습. <광주시립교향악단 제공>

'베를린 필 카메라타' 공연 상영

오늘 빛고을아트스페이스

광주문화재단은 3일 오후 7시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서울예술의 전당 공연 영상화 사업 'SAC on Screen(삭온스크린)'으로 '베를린필하모닉 카메라타' 공연을 상영한다.

이번 연주회에서 '베를린필하모닉 카메라타'는 바로크 시대의 음악을 선보인다. 초기 바로크 음악의 발전에 영향을 끼친 이탈리아 작곡가 '타르티니'와 후기 바로크 음악의 완성에 공헌한 독일 작곡가 '텔레만', '바흐', '헨델'의 작품을 중심으로 트럼펫과 첼로의 협연을 통해 깊은 울림과 감동을 선사한다.

'베를린필하모닉 카메라타(Berlin Philharmonic Camerata)'는 지난 2001년 창단된 독일 베를린 필하모닉의 현악 실내악단이다.

오는 9월 7일 오후 7시에는 국립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을 선보인다. 관람료 무료. 선착순 100명. 문의 공연전신팀 062-670-7941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식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 계림동 홀플러스 건너편 www.geumsoojang.com | 예약문의 (062)525-2111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건축물에 예술을 입히다!

4천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디자인 옵션까지 최원위 디자인에서 만든 제품

Step 1. 방수정리
Step 2. 단열폼이식카셋
Step 3. 외벽아트패션시트

아파트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징점

-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 건축 내외장제 패터너디자이너 잔 멘디니와의 콜라보 디자인!
- 외벽에 옷 입히듯 시공함으로써 건물을 헐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2중외벽 단열방수 | 방수방비 절감 | 탁월한 내구성과 내열성 | 6년 무상 A/S

특허방수공법 이파엘지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추천제품 |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시스템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 010-6603-0405

목포대리점 (061) 284-0485 | 여수대리점 (061) 683-0485 | 순천대리점 (061) 726-0482 | 광양대리점 (061) 795-0485